

한국의 연령-범죄 곡선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

정은경**

국 | 문 | 요 | 약

1980년대 이후 미국 및 서구를 중심으로 한 범죄학에서는 10대 후반의 범죄율이 가장 높고 이후는 급속히 낮아진다는 Hirschi & Gottfredson(1983, 1985)의 주장을 받아들인다(Akers & Sellers, 2009). Hirschi & Gottfredson은 시대, 지역, 범죄유형에 상관없이 연령-범죄 곡선은 10대 후반에 가장 높고 그 후는 “성숙효과”에 의해 급속히 낮아지는 모양을 취한다고 하였다. 많은 범죄학이론들은 10대 후반의 높은 범죄율에 초점을 맞춰 왔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의 연령-범죄 곡선을 보면 범죄의 정점은 30대나 40대에 나타나서 서구의 연령-범죄 곡선과는 다른 모양을 보인다(정은경, 2012; 박철현, 2001; Zhong, 2005). 본 논문은 한국의 연령-범죄 곡선을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로 나누어 살피고 그 결과가 Hirschi & Gottfredson(1983) 주장의 반례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논의를 통해 좀 더 정확한 한국의 연령-범죄 곡선 연구를 위해서는 한국의 범죄 신고율과 검거율을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고 또한 가장 높은 범죄율을 보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범죄 대책을 위해 Sampson & Laub(1992, 2006)가 주장한 행복한 결혼 생활과 안정적인 직장 등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여 비공식적 사회통제 수단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동양적 문화 특성까지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 ❖ 주제어 : 사회문화적 접근, 연령별 범죄율, 생애과정이론, 가부장적 문화, 범죄 신고, 검거율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영산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영산대학교 법경대학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I. 서론

연령에 따라 범죄율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1980년대 활발히 논의되었다. Hirschi & Gottfredson(1983, 1985)은 연령-범죄 곡선 모양은 10대 후반에 가장 높고 그 후 급속히 떨어지는 모양을 보이는데 이러한 형태는 시대와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한 반면에 Greenberg(1977, 1985)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연령-범죄 곡선은 다른 모양을 보일 뿐만 아니라 범죄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위의 논의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연령별 범죄율은 10대 후반이 가장 높게 나타나므로 서구를 중심으로 연구되는 범죄학은 10대 후반의 범죄율이 가장 높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하다(Akers & Sellers, 2009; Sampson & Laub, 1992).

범죄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범죄율이 가장 높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만 한국의 연령-범죄 곡선은 서구와는 다르게 30대나 40대 범죄율이 가장 높음을 보여 준다(정은경, 2012; 박철현, 2001).

한편 Zhong(2005)은 대만의 범죄율을 연구하여 대만의 경우도 미국의 연령-범죄 곡선의 모양과는 달리 30대의 범죄율이 가장 높음을 보였다. 특히 그는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따라 대만의 연령-범죄 곡선의 모양이 다름을 제시하였는데 대만은 재산범죄는 산업화의 영향으로 10대가 높으나 폭력범죄는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으로 30대가 가장 높다고 하여 대만은 범죄 유형에 따라 범죄의 정점이 다름을 제안했다.

한국의 경우 전체적인 범죄율이 30대나 40대가 가장 높다는 연구들은 다수 있으나 범죄유형에 따라 분류한 논문은 거의 없다. 한국도 대만처럼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의 길을 걸었고 가부장적 문화를 갖고 있으므로 Zhong(2005)의 주장을 따르면 한국의 범죄율도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로 나누었을 때 대만의 범죄율과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정이 가능하다.

본 논문은 10대 후반의 범죄율이 가장 높다는 범죄학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령-범죄 곡선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한국의 범죄율을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 후 한국의 연령-범죄 곡선이 한국의 범죄현상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또한 우리나라의 범죄현상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범죄이론과 대책은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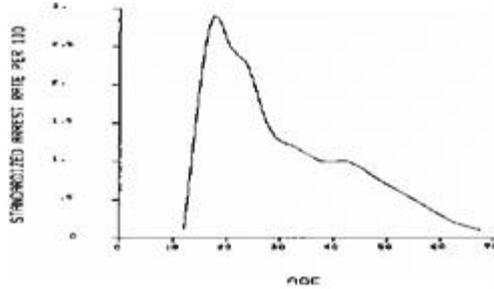
면 것이 있는지를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와 함께 살펴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에서는 연령별 범죄율에 대한 이전 학자들의 논의를 한국의 연령-범죄 곡선에 초점을 맞추어 다룬다. 3장에서는 한국의 연령-범죄 곡선의 모습을 공식적 통계에 바탕을 두고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로 나누어 살펴보고 범죄학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령-범죄 곡선 모양을 지닌 미국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아본다. 4장은 한국의 연령-범죄 곡선이 Hirschi & Gottfredson(1983, 1985) 주장의 반례가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성인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Sampson & Laub(1992, 2006)를 중심으로 하는 생애경로이론적 접근을 제안한다. 또한 동양의 가부장적 문화와 가족중심의 문화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연령-범죄 곡선에 영향을 주는지도 알아본다. 공식적 검거통계에 기반을 둔 국가 간의 범죄율 연구에서 오는 연령-범죄 곡선 비교연구의 한계점도 같은 장에서 논의되었다. 마지막 장은 본 논문의 결론이다.

II. 선행연구

연령별 범죄율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이후 뜨겁게 진행되었다. Hirschi & Gottfredson(1983)은 연령에 따른 범죄율에 대해 지역과 발전수준, 또한 시대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10대 후반의 범죄율이 가장 높고, 이것은 독립변수라고 하였다. Hirschi & Gottfredson은 범죄유형이나 시대, 지역에 상관없이 연령-범죄 곡선은 “거꾸로 된 J(inverted J)”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연령-범죄 곡선 모양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Hirschi & Gottfredson(1983)에 나타난 연령-범죄 곡선



〈그림1〉에서 보듯이 Hirschi & Gottfredson(1983)은 10대 후반의 범죄율이 가장 높고 그 후는 급격히 낮아진다는 주장을 1842, 1843, 1844년 그리고 1965년의 영국과 웨일즈의 범죄율, 1908년 영국, 1977년 미국의 범죄 자료 그 외에도 아르헨티나,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장했다. Hirschi & Gottfredson은 청소년기가 지나면 “성숙효과(maturation effect)”에 의해 범죄가 당연히 줄어든다고 하였다.

Greenberg(1985)는 Hirschi & Gottfredson(1983)의 자료는 지역적으로 한정되었고, 너무 일반화한다는 단점을 지적하며, 연령별 범죄율은 지역, 범죄 유형, 국가의 발전 단계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연령-범죄 곡선에 대한 “변동입장(variancy position)”을 견지했다.

그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범죄학에서는 Hirschi & Gottfredson(1983, 1985)의 주장인 10대 후반의 범죄율이 가장 높고 이후로는 급격히 낮아진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고(Sampson & Laub, 1992; Akers & Sellers, 2009) 10대 후반의 높은 범죄율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시도들이 있어 왔다(Cohen & Felson, 1979; Cohen & Land, 1987; Hirsch, 2006; Rosenfeld & Messner, 2006; Shaw & McKay, 2006).

한편 우리나라 연령별 범죄율에 대한 연구를 보면 10대 후반의 범죄율이 가장 높다는 일반적으로 범죄학에서 받아들이는 추세와는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율이 높은 시기는 미국보다 훨씬 늦은 나이에 일어난다(김진현 등, 2007; 박승진 등, 1997; 이상철, 기광도, 1993; 박철현, 2001; 최인섭, 2003; 최인섭, 박순진, 1993).

정은경(2012)은 1967년에서 2010년까지의 우리나라 범죄율을 연구하여 한국에서 연령별 범죄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성인 시기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연령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정은경이 제안하는 한국의 연도별 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표 1>과 같다.

<표 1> 연도별 범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¹⁾

	16-20	21-25	26-30	31-35	36-40	41-50	51-60
1967			1				
1971			1				
1976				1			
1981			2	3	1		
1986				1			
1991				1			
1996					1		
2001					1		
2005					2	1	
2010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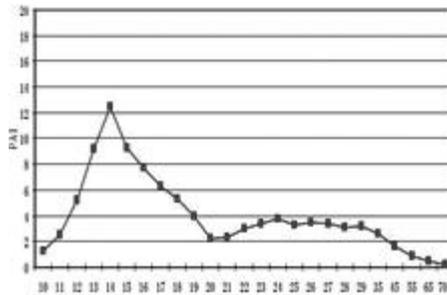
<표 1>은 한국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나이는 1967년과 1971년에는 26-30세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후 점차 연령이 증가하여 1976년, 1986년, 1991년에는 31-35세, 1996년과 2001년에는 36-40세, 그리고 2005년과 2010년에는 41-50세로 나타남을 보인다.

성인의 범죄율이 청소년 범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나라는 한국만은 아니다. Zhong(2005)은 동양적 문화가 연령에 따른 범죄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가정하고 대만의 체포율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는 1961년부터 1991년까지의 대만의 연령별 체포율을 분석하여 개발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과, 범죄유형에 따라 연령-범죄 곡선의 변화가 있는지를 살폈다. Zhong은 대만이 발전함에 따라 일반 재산범죄는 젊은 층이 저지르는 비율이 점점 높아져 개발이 재산범죄의 연소화에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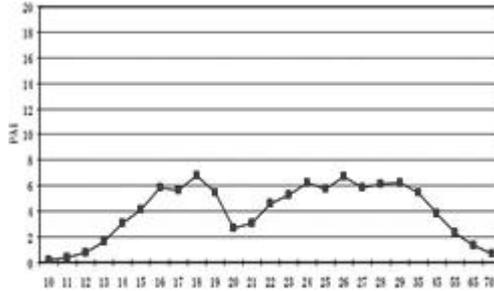
1) <표 1>에서 범죄율이 높은 연령대 순으로 1, 2, 3으로 표시했다.

끼치고 있지만 대만의 폭력범죄와 전체범죄는 오히려 나이가 많은 층에서 저질러지고 있음을 보였다. 그는 대만의 폭력범죄와 전체범죄가 30-40대에서 높은 것은 가부장적이고 가족 중심의 중국 문화 탓에 젊은이들의 폭력성이 통제되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Zhong(2005)에 나온 1991년도 대만의 연령별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는 <그림 2>와 <그림 3>과 같다.

<그림 2> 대만의 연령별 재산범죄율²⁾



<그림 3> 대만의 연령별 폭력범죄율



대만의 연령별 범죄율을 보면 재산범죄는 미국처럼 10대의 범죄율이 가장 높고

2) 대만의 자료는 대만의 범죄 자료를 직접 구할 수 없어서 Zhong(2005)의 논문에 나온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다. Zhong은 대만의 범죄율을 분석하기 위하여 Taiwan Criminal Investigation Bureau of Police Administration Agency(CIB)에서 매년 발행되는 대만 체포자 수 보고에 기초하여 범죄수를 계산했고 인구는 Taiwan Statistical Yearbook(DGBAS)에 나타난 자료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Zhong은 표준화된 범죄율 자료인 PAI(the age-specific percentage involvement)를 사용했으므로 본 논문의 한국과 미국의 자료와는 다소 다른 계산법을 사용했다.

이후 급격히 낮아지나 폭력범죄율의 경우는 징집연령대인 20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30대까지 꾸준히 지속되다가 40대가 되어서야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음을 보인다. 대만의 범죄율이 20대 초반에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징집에 따른 결과라고 Zhong(2005)은 설명한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범죄학에서는 일반적으로 10대 후반의 범죄율이 높고 그 후는 급격히 낮아진다는 연령-범죄 곡선 모양을 받아들이고 있으나 한국의 연령-범죄 곡선은 30대나 40대에 정점을 형성함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적인 연령-범죄 곡선 모양이 한국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산업화 과정을 겪었고 가부장적 문화를 갖고 있는 대만도 30대에 범죄의 정점이 형성됨을 보았다. 특히 Zhong(2005)은 대만의 경우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따라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연령대가 다름을 대만의 사회문화적 현상과 더불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대만과 유사하게 성인의 범죄율이 가장 높고 비슷한 사회현상을 가진 우리나라도 두 가지 범죄유형을 나누어 분석한다면 보다 대응적인 범죄대책을 세울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한국의 범죄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범죄이론과 대책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한국의 연령별 범죄율 현황을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령별 재산범죄율과 폭력범죄율

본 장에서는 한국의 연령-범죄 곡선 모양을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로 나누어 살펴본다. 한국의 연령-범죄 곡선을 분석하기 전에 범죄학에서 많이 논의되는 미국의 경우를 먼저 알아보고 한국의 경우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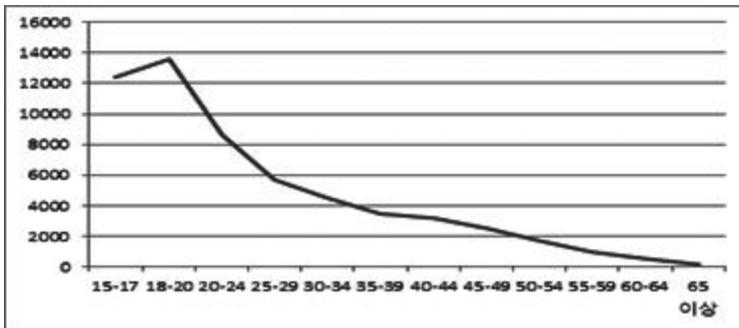
미국의 연령-범죄 곡선은 많은 범죄학이론에서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비교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Zhong(2005)의 주장이 한국에도 해당되는지 알아보고자 범죄유형을 나누었기 때문에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포함된 범죄종류로는 Zhong(2005)이 사용했던 분류를 적용했다. Zhong은 그의 논문에서 재산범죄에 절도(larceny), 사기(fraud), 장물(stolen property)을 포함시켰고, 폭력범죄에는 살인

(homicide), 강도(robbery), 상해(aggravated assault)를 포함하여 분석했다. Zhong(2005)의 분석과 유사하게 미국의 경우는 폭력범죄에는 살인(murder and nonnegligent manslaughter), 강도(robbery), 상해(aggravated assault)를, 재산범죄에는 절도(larceny), 사기(fraud), 장물(stolen property)을 포함했고 한국의 경우는 형법범만을 포함했는데 재산범죄에 절도, 사기, 장물을, 폭력범죄에 살인, 강도, 폭행 및 상해를 포함했다.

범죄학이론의 기본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연령-범죄 곡선의 모양은 어떠한가? 미국의 연령별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공식적인 체포자수와 인구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 미국의 범죄율을 구했다. 연령-범죄 분석에 필요한 미국의 체포자수는 FBI에서 제공하는 UCR(Union Crime Report) 자료를 사용했고 인구는 미국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했다. 범죄율은 체포자수를 해당 나이의 인구수로 나눈 후 100,000을 곱한 인구 10만 명당 체포자수로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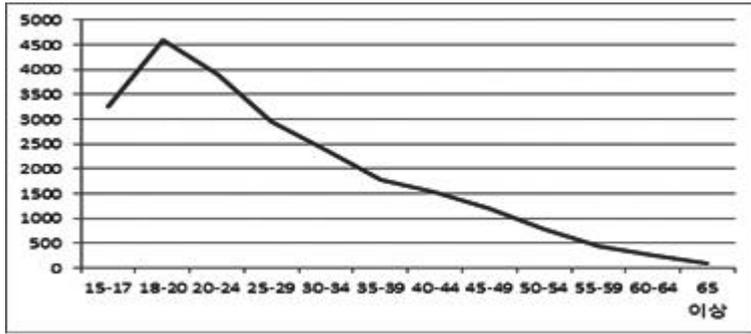
미국의 연령별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는 <그림 4>와 <그림 5>와 같다.

<그림 4> 미국의 연령별 재산범죄율³⁾



3) 미국의 연령별 범죄율 분석에 나타난 연령 분류에는 20세가 두 번 나온다. 이는 미국의 Census Bureau에 나타난 인구 분류가 15-17, 18-20, 20-24, ...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UCR 범죄분류에는 15-20세까지의 체포자수가 나이별로 되어 있어서 20세 때의 체포자수를 18-20세에도 포함시키고 20-24세에도 포함시켜서 연령별 범죄율을 구했다.

〈그림 5〉 미국의 연령별 폭력범죄율



미국의 연령별 재산범죄율과 폭력범죄율을 보면 두 범죄유형간의 빈도수만 차이가 있지 연령-범죄 곡선의 모양은 유사하다. Hirschi & Gottfredson(1983)이 주장하는 <그림 1>과 같아서 10대 후반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고 그 이후 점차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Zhong(2005)의 범죄유형 분류에 따라 살펴본 연령-범죄곡선은 미국의 경우 전형적인 “거꾸로 된 J”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대만과 유사한 사회문화적 특징을 보이는 한국은 대만과 유사한 재산범죄와 폭력범죄 연령-범죄 곡선 모양을 보이고 있을까?

한국의 연령-범죄 곡선을 알아보기 위해 본 논문은 1990년에서 2010년까지의 재산범죄율과 폭력범죄율을 5년 단위로 나누어 분석했다.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범죄분석통계시스템의 범죄자 범행시 연령 정보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총조사 자료를 사용했다⁴⁾.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범죄분석통계시스템은 대검찰청에서 발간되는 범죄분석을 기본으로 구축한 것이다. 범죄자수를 해당 나이의 인구수로 나눈 후 100,000을 곱하여 인구 10만명당 해당하는 연령대의 범죄율을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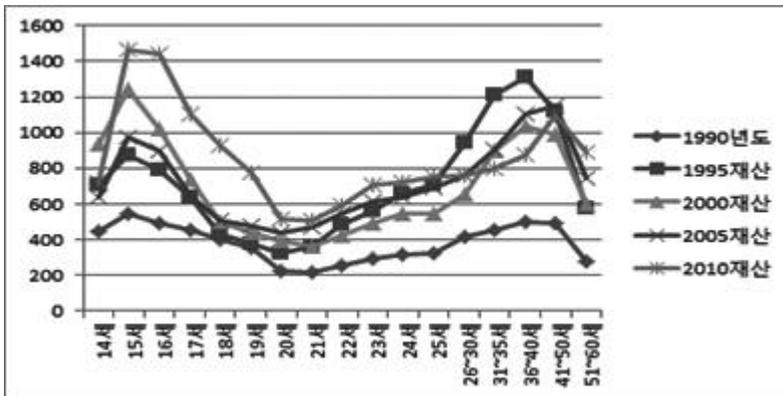
4) 1990년과 1995년 인구총조사 자료에는 60세 인구수가 따라 표시되지 않고 <60세 이상>의 인구수가 한꺼번에 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51-50세 구간 분석에서 60세 인구수를 파악할 수 없어 59세 인구수를 60세 인구수로 대체했다. 약간의 오차는 있으나 연령-범죄 곡선 모양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하여 연령별 범죄율을 확보했다.

절도, 장물, 사기를 포함하는 재산범죄에 대한 한국의 연령별 범죄율은 아래 <그림 6>과 같다. 연령분류는 범죄분석통계시스템에서 분류한대로 14세에서 25세까지는 각 연령별로, 26세에서 40세까지는 다섯 살 단위로, 40대 이상은 10살 단위로 표시했다.

<그림 6>에 나타난 한국의 연령에 따른 재산범죄율을 보면 매 년도별로 두 개의 봉우리가 나타난다. 첫 번째 봉우리는 15세에, 두 번째 봉우리는 1990년과 1995년, 그리고 2000년에는 36~40세에 나타나고 2010년에는 40대에 나타난다. 1995년과 2005년을 제외하고는 15세 때 범죄의 정점을 이루고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10대의 범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대 초반의 범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는데 이는 20대 초반에 젊은이들이 징집에 의해 2년 동안 군대에 가 있기 때문으로 설명된다(박철현, 2001; 정은경,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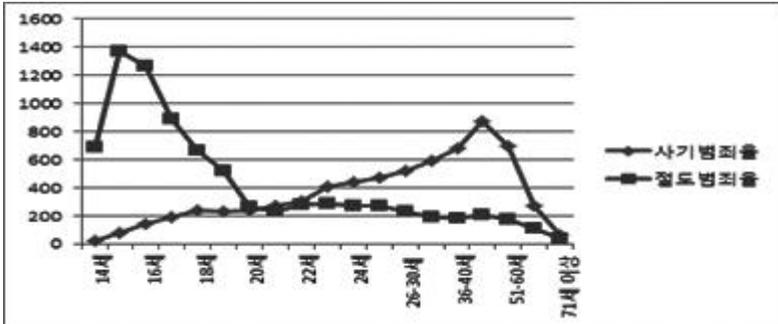
<그림 6> 한국의 연령별 재산범죄율



20대 초반 군대 갔을 때의 낮은 범죄율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범죄율 곡선은 어느 한 지점에서 정점을 찍고 이후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Hirschi & Gottfredson(1983)이 주장하는 <그림 1>의 모습이 아니라 10대 중반에 한 번, 그리고 30~40대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아래 <그림 7>에서 보여 주듯이 절도와 사기를 많이 저지르는 연령대가 다른 데 기인한다. <그림 7>은 2010년도 재산범죄율을 절도범죄와 사기범죄로 나누어 분석한 것이다. 절도와 사기 외에 장물 범죄의 경우는 연령대별로 인구 10만

명당 2회에서 25회로 비교적 작아 곡선 모양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그림으로는 표시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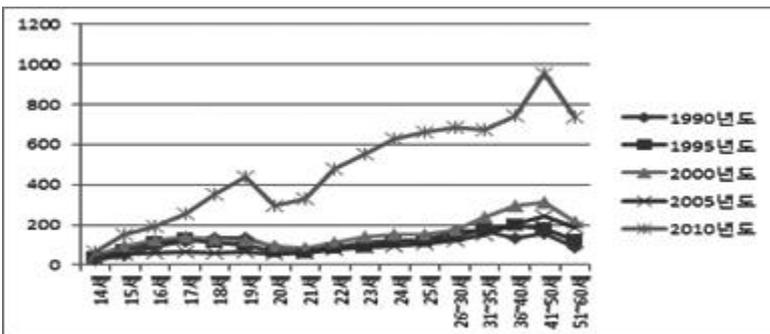
<그림 7> 한국의 연령별 절도범죄율과 사기범죄율



한국의 경우 재산범죄에 포함된 절도와 사기를 많이 저지르는 연령이 확연히 구분된다. 절도는 10대들이, 사기는 나이가 들수록 많이 저질러 40대에 가장 범죄율이 높음을 <그림 7>은 보여 준다. <그림 6>에 나타난 두 개의 봉우리는 10대의 높은 절도 범죄율과 40대의 높은 사기 범죄율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연령별 폭력범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폭력범죄에는 형법범 중에서 살인, 강도, 폭행, 상해를 포함시켰다. 한국의 연령별 폭력범죄율은 <그림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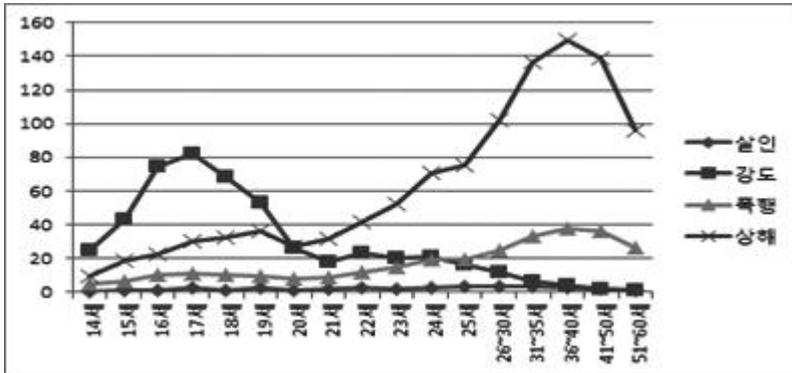
<그림 8> 한국의 연령별 폭력범죄율



한국의 폭력범죄율은 재산범죄보다는 30대나 40대의 범죄율이 더 높게 나타나서 Zhong(2005)이 분석한 대만의 경우와 유사하다. 그러나 범죄의 정점연령은 1990년에는 31~35세, 1995년에는 36~40세, 그 이후는 40대의 폭력범죄율이 가장 높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아짐을 보인다. <그림 8>을 보면 2010년도 범죄율 곡선이 다른 년도보다 확연하게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2006년 개정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개정 이전 특별법에서 다루던 특정 폭력범죄들이 개정 이후 형법에서 다루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징집에 의해 일시적으로 낮은 범죄율을 보이는 20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폭력범죄가 30~40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폭력범죄를 살인, 강도, 폭행, 상해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그림 9>이다. 폭력범죄의 항목별 분석을 위해서 2010년 자료가 다른 년도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서 전체 폭력범죄 곡선의 평균처럼 보이는 1995년 자료를 분석했다.

<그림 9> 한국의 연령별 살인, 강도, 폭행, 상해 범죄율



<그림 9>를 보면 강도는 17세 때 가장 높고 폭행이나 상해는 36~40대에 가장 높아 강도가 청소년의, 상해와 폭행이 성인의 연령-범죄 곡선 모양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인은 절대적 범죄율이 낮기 때문에 곡선 모양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본 장에서 살펴본 한국의 연령별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의 연령-범죄 곡선에서 모두 두 개의 봉우리가 나타나고 있어 미국의 연령-범죄 곡선 모양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재산범죄에

서는 절도가, 폭력범죄에서는 강도가 10대의 높은 범죄율의 주요 원인이고 성인범죄율을 높이는 범죄는 사기와 상해, 폭행임을 본 장의 분석결과는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재산범죄와 폭력범죄 분석은 두 범죄유형에서 모두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봉우리가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범죄의 정점 연령대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IV. 논의

앞 장에서 한국의 연령별 범죄율을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의 연령-범죄 곡선은 Hirschi & Gottfredson(1983, 1985)의 주장과는 달리 30대와 40대에서 높게 나타남을 알아보았다. 본 장에서는 한국의 연령-범죄 곡선이 Hirschi & Gottfredson의 주장의 반례가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점차 고령화되는 성인범죄율의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연령-범죄 곡선은 Hirschi & Gottfredson(1983, 1985)의 반례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Hirschi & Gottfredson의 반례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연령별 범죄율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했는지가 중요한데 본 논문은 한국의 연령별 범죄율을 알기 위해 대검찰청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검거통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몇 가지 한계가 드러난다. 첫 번째는 공식적인 범죄통계가 갖는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국가 간 범죄율 비교에서 오는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죄발생 상황을 연구한 것이 아니고 검거통계를 기초로 해서 범죄율을 분석한 데서 오는 문제점이다. 위의 세 가지 문제점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한다.

통상적으로 범죄현상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공식적인 범죄통계자료보다는 자기보고식 방법, 다음으로 피해자 조사에 의한 방법이 선호된다(Akers & Sellers, 2009).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기보고식 범죄 자료는 있으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자료가 거의 없고 피해자 조사 자료에는 범죄자의 연령별 정보가 없어 본 연구를 위해서는 부득이 공식적인 범죄통계인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공식적인 범죄통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관에 신고된 범

죄만을 다루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했더라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범죄로 기록되지 않는다(곽대경 외, 2007). 그러므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 지적해야 할 점은 국가 간 범죄비교에서 오는 한계이다. 나라마다 정의하는 법의 기준이 다르고 범죄통계 집계방식이 다르며 중점을 두고 단속하는 범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어 본 논문에서는 재산범죄 분석에 절도, 사기, 장물을 포함시켰는데 미국은 장물의 체포율이 사기와 거의 유사했으나 한국의 경우는 장물의 체포율이 너무 낮아 본 논문의 연령-범죄 곡선 모양에 거의 영향이 없었다. 한국만의 범죄분석을 보더라도 <그림 7>에 나타난 폭력범죄의 경우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0년 폭력범죄의 곡선이 두드러지게 높아졌음을 보았는데 같은 나라에서 법을 조금만 바꾸어도 범죄율의 차이가 큰데 나라마다 범죄 집계 방식이 다르고 법의 기준이 다르므로 국가별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검거통계에 따른 범죄율 분석의 문제이다. 범죄자의 연령을 알기 위해 본 논문은 범죄분석의 검거통계를 사용했다. 검거통계는 신고된 범죄 중에서 검거된 사건만 기록하므로 신고과정에서 누락되고 범죄자가 검거되지 못한 범죄의 경우 통계에서 빠지므로 검거통계에 의한 분석은 실제 범죄율보다는 축소된다. 한국의 경우 어느 정도의 범죄가 축소되었는지를 알아보자. 한국은 미국과 비교할 때 신고율이 상당히 낮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2010년 한국의 범죄피해자 조사에 따르면 절도와 강도의 신고율은 각각 11%와 12%, 사기와 폭행상해는 각각 21%와 33%로 <그림 7>과 <그림 9>에 나타난 청소년 범죄 비율이 높은 절도와 강도의 신고율은 성인범죄비율이 높은 사기와 폭행상해의 절반 내지는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2010년도 검거율 역시 전체 형법범의 검거율은 75.6%이나,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재산범죄의 경우는 65.9%이므로 검거통계를 기본으로 한 한국의 연령-범죄 곡선의 모양은 많은 암수 특히 청소년의 범죄율이 높은 범죄항목에서의 암수범죄가 상당히 많음을 보인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신고율은 강도 52.4%, 상해 62.4%, 단순폭행 42.3%(Catalano, 2011)로 한국에 비해 훨씬 높다. 특히 강도의 신고율은 한국의 경우는 12%였으나 미국은 50%가 넘어 대조를 보인다.

Skogan(1976)은 폭력범죄의 경우는 폭력의 정도가 심할수록, 재산범죄의 경우는 액수가 클수록 신고율이 높으며 청소년의 신고율이 성인에 비해 낮다고 하는데 그의 주장 역시 범죄발생이 되었다라든가 청소년이 저지르는 경미한 범죄는 성인범죄에 비해 신고율이 낮아 암수가 포함될 확률이 더 높음을 지적한다. 절도나 강도처럼 90%정도가 신고 되지 않고 66~76%의 검거율을 기본으로 한 검거자를 기본으로 한 분석이 과연 어느 정도 범죄율로서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지는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다.

한국에서 청소년 범죄율이 높은 범죄의 신고율이 낮다는 것은 높은 암수범죄의 존재와 더불어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의 특징도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청소년범죄에 대해 성인범죄보다는 관대하고 학생범죄는 학교에서 징계를 주든지 아니면 선처를 호소했을 때 용서를 잘 받을 수 있어 형사사법기관에 신고까지는 안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검거통계를 기준으로 한 한국의 연령-범죄곡선이 Hirschi & Gottfredson(1983, 1985)의 주장을 반박하기에는 암수범죄가 너무 많으므로 그들의 반례로는 적합하지 않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의 암수범죄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현상과 더불어 나타나고 있음도 제안했다.

청소년범죄와 성인범죄의 비교 외에도 본 논문의 분석은 성인연령대인 두 번째 봉우리의 정점이 점차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성인범죄의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보인다.

범죄학자들은 범죄의 원인에 대해 경제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가 쌓일 때, 비공식적인 사회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유대가 부족할 때 등 다양한 원인을 내어 놓는데, 범죄학 이론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가장 압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느끼고 유대가 부족한 시기는 90년대 30대 중반에서 이제는 40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인다.

정은경(2012)은 한국에서 범죄율이 높은 세대는 1991년 이후는 베이비붐 세대⁵⁾와 일치한다고 하였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범죄율이 높은 것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는 충분한 일자리가 없었고(최인섭, 박순진, 1993) 그 이

5) 한국사회에서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로 분류한다(송양민, 2010, p.25).

후 베이비붐 세대는 IMF 외환위기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세대가 되어 그로 인한 이혼율과 실업률의 증가(방성수, 장보임, 2003) 여파로 지속적으로 그 세대의 범 죄율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도 다른 세대보다 인구수가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존재하나 미국의 연령-범죄 곡선은 그들의 범 죄율이 높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두 나라간의 사회문화적 차이가 다른데서 설명할 수도 있는 것 같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미국 경제호황의 주역이나(O'Rourke, 2014), 한국은 베이비붐 세대보다 조금 앞선 경제개발 세대가 경제성장의 이익을 가장 많이 보고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개발 세대보다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도 오히려 그 혜택을 그들만큼 누리지 못했다(송양민, 2010).

한편 Zhong(2005)은 대만에서 사춘기의 폭행범 죄율이 성인보다 낮은 것은 가부장적이고 가족 중심의 중국 문화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Zhong(2005)의 제안처럼 가부장적인 문화가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 범 죄율을 높이는데 일조하는 것 같다. 가부장적 사회인 한국에서 높은 실업률과 이혼율에 노출된 베이비붐세대는 경제적 무능과 해체된 가정에 대한 스트레스를 서구사회의 성인보다 더 크게 받았을 것이며 그로 인해 범 죄의 기회에 더 노출된 것 같다.

Benson(2002)은 범 죄를 저지르기 위한 조건들은 누적된다고 하였다. 40대 이후의 범 죄자들은 외환위기까지 겪으면서 이미 부정적인 영향들이 누적된 상태이므로 이들이 범 죄를 끊을 수 있는 전환점(Sampson & Laub, 2006)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사회에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범 죄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성인에 의한 더 심각한 범 죄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 보인다.

성인에 의한 범 죄는 청소년기 범 죄보다 더 위험하고 심각하다. 사춘기 때 범 죄에 진입할 때의 범 죄는 비교적 절도와 같은 약한 범 죄가 많으나 40대의 범 죄는 나이가 들고 범 죄의 경력이 늘어날수록 더 심각한 범 죄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범 죄대책이 더 중요하다.

Benson(2002)은 성인의 범 죄 대책은 사춘기의 범 죄대책과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Sampson & Laub(2006)은 성인 범 죄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은 행복한 결혼과 안정적 직업을 통한 사회유대의 강화라고 하였다. 그들은 형식적인 결혼생활이나 안정되지 않은 일자리는 사회유대를 형성하지 못하므로 범 죄를 줄이지는 못한

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정책은 중년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과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소속감을 느껴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공식적인 검거통계에 기초한 연령-범죄 곡선이 과연 한국의 범죄율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점점 연령층이 높아가는 성인범죄대책에 대해서 살폈다. 특히 한국의 연령-범죄 곡선에서 범죄율 분석의 자료로 삼은 검거통계는 가부장적이고 가족중심적인 한국사회가 청소년 범죄에 관대하므로 청소년 범죄의 높은 암수범죄가 범죄율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단점이 있음을 알았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높은 범죄율은 그 세대가 겪는 경제적 기회 부족과 높은 이혼율 등이 가부장적 문화에서 느끼는 가장으로의 책임감 등으로 더욱 높은 범죄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음을 살폈고 범죄 대책도 제안했다. 다음 장은 본 논문의 결론이다.

V. 결론

본 논문은 10대 후반의 범죄율이 가장 높다는 범죄학의 일반 주장과는 달리 30대나 40대의 범죄율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한국의 연령별 범죄율을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로 나누어 분석했다. 분석결과 두 가지 범죄유형에서 모두 성인의 범죄율이 미국이나 서구의 범죄율보다는 높게 나타남을 보이고 성인의 범죄율에 있어서도 범죄율이 특정 나이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연령이 높아지는 것을 보였다.

결과를 논의하면서 성인의 범죄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범죄율 분석시 정확한 범죄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암수범죄가 높은 공식통계를 사용했고 범죄현상을 분석하기보다는 신고된 범죄 중에서 검거통계에 바탕을 두고 했기 때문에 암수범죄에 의해 범죄율이 왜곡되었을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왜곡에는 학생들에게 관대한 한국 문화가 반영되었음도 살폈다.

청소년과 성인과의 범죄율 비교에서는 암수범죄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나 같은 성인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성인범죄자의 연령이 높아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인구수

가 많은 베이비붐 세대의 높은 실업률과 이혼율이 가부장적 문화에서 느끼는 가장의 무게와 더불어 범죄 기회를 높일 수 있음을 보이고 이를 위한 범죄대책으로는 인생경로이론적 접근인 안정된 직업과 행복한 결혼을 통한 비공식적 통제의 강화를 제안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곽대경/기광도/김상원/박정선/박철현/연성진/이성식/이순래/최응렬. 현대사회와 범죄, 청
목출판사, 2007
- 김진현/이천현/홍명오/박형민/김한균/권수진. 한국의 범죄동향과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연구총서 07-01, 2007
- 박승진/이동원/박순진,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964-199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
구보고서 97-21, 1997
- 박철현, “한국의 연령-범죄곡선”, 한국인구학 24:149-177, 2001
- 방성수/장보임, “이혼 증가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방법”, 복지행정논총 13-1:160-175,
2003
- 송양민, 밥, 돈, 자유: 대한민국을 재창조한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21세
기 북스, 2010
- 이상철/기광도, 범죄발생의 추세분석: 1964-199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정은경, “한국의 연령에 따른 범죄율에 대하여”, 형사정책연구23-3:267-291, 2012
- 최인섭, 형법범죄 발생을 추세(1964-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최인섭/박순진, 사회구조와 범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외국문헌]

- Agnew, R., “Pressured into crime: General strain theory”, Pp. 201-209 in F. T.
Cullen & R. Agnew (ed.) Criminological Theory: Past to present, 3rd edition.
CA:Roxbury, 2006
- Akers, R. L. & Sellers, C. S., Criminological Theories: Introduction, Evaluation,
and Application,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Benson, M. L., Crime and the Life Course: An Introduction, Los Angeles:Roxbury,

2002

- Catalano, S. M., "Criminal Victimization",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ulletin, 2011
- Cohen, L. E. & Felson, M.,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588-608, 1979
- Cohen, L. E. & Land, K. C., "Age structure and crime: Symmetry versus asymmetry and the projection of crime rates through the 1990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2:170-183, 1987
- Greenberg, D. F., "Delinquency and the age structure of society", *Contemporary Crises* 1:189-223, 1977
- _____, "Age, crime and social explan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1-21, 1985
- Hirschi, T., "Social bond theory", Pp. 219-227 in F. T. Cullen & R. Agnew (ed.) *Criminological Theory: Past to present*, 3rd edition. CA:Roxbury, 2006
- Hirschi, T. & Gottfredson, M., "Age and the explanation of cri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9:552-584, 1983
- _____, "Age and crime, logic and scholarship: comment on Greenber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1:22-27, 1985
- O'Rourke, P.J., *The Baby Boom*, New York:Atlantic Monthly Press, 2014
- Rosenfeld, R & Messner S. F., "Crime and the american dream", Pp. 191-200 in F. T. Cullen & R. Agnew (ed.) *Criminological Theory: Past to present*, 3rd edition. CA:Roxbury, 2006
- Sampson, R. J. & Laub J. H., "An age-graded theory of informal social control", Pp. 241-253 in F. T. Cullen & R. Agnew (ed.) *Criminological Theory: Past to present*, 3rd edition. CA:Roxbury, 2006
- Skogan, W. G. "Citizen reporting of crime, *Criminology*, 13-4:535-549, 1976
- _____, "Crime and deviance in the life course", *Annual Reviews in Sociology*, 18:63-84, 1992
- Shaw, C. R. & McKay, H. D.,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Pp. 95-101

in F. T. Cullen & R. Agnew (ed.) Criminological Theory: Past to present, 3rd edition. CA: Roxbury, 2006

Zhong, H., The age-crime relationship across time and offense types: A comparison of the United States and Taiwa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2005

[기타]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범죄분석통계시스템(<http://arc.crimestats.or.kr/crimestats/>)

통계청 홈페이지자료(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

FBI UCR 자료(<http://www.fbi.gov/stats-services/crimestats>)

U.S.A. Census Bureau(<http://www.census.gov/#>)

A Socio-Cultural Approach to Korean Age-Crime Curves

Jeong, Eunkyeong*

Hirschi & Gottfredson (1983, 1985) proposed that age-crime curves peak in late teens and decrease sharply after the age. They argued that this "inverted J" shape of age-crime curves is invariant irrespective of different social and cultural conditions. However, Zhong (2005) and Jeong (2012) showed that Taiwan's and Korea's crimes peak in 30s or 40s.

This paper analyses Korean age-crime curves dividing them into property crimes and violence crimes, and shows that in both crime types, adult crime rates are higher than those of U. S. A. The result also represents that in adult crimes, the peak ages are getting older.

In discussion,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age-crime curves of Korea are distorted because low crime report rates which are influenced by patriarchal culture in Korea. And to reduce Korea's adult crimes, happy marriages and stable jobs are recommended based on life-course theory. It is also suggested that Korean criminal policy must consider the country's cultural background.

❖ Key words: socio-cultural approach, age-crime curve, life-course theory, crime report, patriarchal society, arrest rate

투고일 : 5월 30일 / 심사(수정)일 : 6월 18일 / 게재확정일 : 7월 4일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Youngsan University.